

경영목표 달성 하반기 워크샵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달 10일 대표이사 및 상임고문, 부사장을 포함, 전사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산학 ETRS센터에서 2010년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상반기 경영실적 분석 및 하반기 주요경영전략, 부문별 목표 달성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선보가족 단합의 밤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한 내실경영'이라는

하반기 경영 지침을 설명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설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며, 필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업무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임고문은 강평을 통해 "이번 워크샵은 부문별 상반기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만회할 수 있는 'actual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다. 확실하게 목표를 전사로부터 인계받아 내 것으로 삼고, 계획을 actual하게 진행해

야 할 것"이라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행사가 끝난 후 이어, '하모니를 통한 New-Start'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서로 다른 음식의 다양한 약기를 연주하여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가는 드림씨클 과정을 통해 워크샵 참가자들은 '일체감 형성'이 '무한 경쟁 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참가한 한 직원은 "드림씨클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회사는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화합 속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그 소감을 전했다.

이번 2010년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 워크샵은 '이기는 경영실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획기적인 경영 성과 달성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전 임직원의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빛났다.



GPS 신임회장 일행 본사 방문

지난달 21일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GPS 신임회장 일행이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GPS의 엔지니어링 능력과 우리 회사의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상호협력 관계 형성과 국내의 해양 플랜트 영업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내 해양 플랜트 원천기술 제휴 등의 협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GPS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해양 플랜트 사업 진출에 근본적인 원동력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장소통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



우리 회사는 지난 26, 27일 이틀동안 사내협력사 소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및 상생협력 강화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대표이사가 직접 '일체화된 사내협력관계'를 실천하고자 지속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 방안, 현장 고충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우리회사는 조선불황 극복을 위

한 공격적 수주활동을 통해 생산물량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체감'이 중요하다고 단합의 중요성을 전달하였다.

끝으로 대표이사는 간담회 후 인근 식당에서 여름 보양식 중 백미인 녹용삼계탕을 같이 먹으며 무더운 날씨에 한결같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사장들을 손수 다독이며 격려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하반기에도 독서열풍 그대로! -독서통신교육 실시-



독서를 통한 직원들의 지식확대를 위해 시행해 온 독서통신교육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상, 하반기로 나뉘어져 1년에 2번 진행되는 독서통신교육은 1인당 책 3권을 읽고 그에 대한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실제 지난 상반기에는 총 146명이 신청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모든 직원들이 독서통신 교육을 이수해내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자에 대한 시상 및 소정의 상품지급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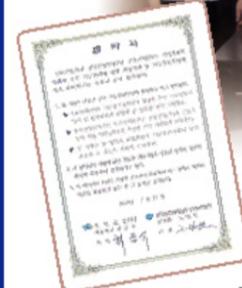
우수자 중 한 직원은 "사실 바쁜 업무시간에 쫓겨 독서를 할 시간이 없는

데, 회사의 배려를 통해 독서할 기회를 갖게 되어 좋은 것 같다. 시간을 쪼개서 읽는 만큼 독서의 효과가 실제 업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보람찬 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하반기 독서통신교육은 이전보다 경제, 경영 등 실제 직무능력향상에 필요한 도서들로 그 범위를 좁히고,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할 예정이다. 단순한 독서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사소한 업무처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을 기대해본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전문기능인력 양성강화를 위한 기능장려사업 업무협약식 가져



우리 회사는 중장기 목표인 SB 2012의 조기달성을 위해 전문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대표이사 및 노만진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경남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능장려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내 자격증 제도 도입 등 현장기능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내 기능 장려제도가 회사 내에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전문기능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과 제도를 이번보다 조금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능 장려문화 확산을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산학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우수기능을 보유한 기능인들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대우를, 보다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서 대표이사는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개개인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을 표준화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능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 포부를 전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남편의 입사 10년만에 떠난 꿈같은 여행 - 안정빈 과장 부인, 김지영씨 -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5년 단위로 특별휴가 및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이에 입사 10년 만에 얻은,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고 온 안정빈 과장의 부인을 만나보았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로 40분이면 제주도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이를 회상하며 그녀는 오랜만의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한다.

"휴가를 충분히 만끽하고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평온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의 여행이라 그런지 다른 때보다 유난히 설렌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녀는 한편으로는

부산도, 제주도만큼 바다를 비롯한 환경보전이 잘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고 한다.

그녀는 "제주도 공기가 좋아서인지 부산에서는 보기 힘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천문

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달을 봤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 신기해 할 정도였어요"라며 그 생생한 후기를 전했다.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섬지코지' 라는 곳에서 숙박을 했다는 그녀는 밤에 잘 때 잔잔한 파도소리가 들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달콤한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제주도의 푸른 공기 이외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녀는 제주도가 관광도시인 만큼 볼거리, 체험할거리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끼리쇼'

는 조련사가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주면 자기가 먹고, 돈을 주면 조련사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훈련'의 중요성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코끼리와 조련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함께 훈련의 시간을 거듭해 왔는지 기쁘게 했어요. 새삼 훈련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동시에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을 거듭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으로만 하던 카트라이터를 실제로 아이들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녀는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을 회상하며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부족했는데, 남편의 입사 10년만에 주어진 특별



휴가 덕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이같은 배려를 허락해준 회사에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의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라고 감사의 말과 후기를 전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콤하다고 했던가. 바쁜 업무일정 속에 달콤한 휴가를 즐기고 온 그들. 그 기억을 뒤로하고 또 다른 바쁜 발걸음을 옮길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Life 인터뷰

당신이 먼저 "Hi, How are you?"



혹시 'Can you speak English?' 라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며 머뭇거린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은 해양사업부 버마에게 먼

저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Hi, How are you?" 혹은 안녕하세요. 버마는 현재 우리 회사 해양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다. 국적이 인도인 그는 한국에서

조선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 우리나라, '선보' 라는 곳에 왔다. 그에게 선보에서 일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없냐는 물음에 뜻밖에도 '없다' 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인이 서툰 그는 다른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한국음식 중에서 닭갈비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매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영어사용에 서툴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한국인들의 영어실력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 마디, 한 마디씩을 건네주는 동료들에게 친밀함을 느끼다보니 오히려 회사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는 한국을, 그리고 선보를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비록 지금 정체되어 있긴

하나, 큰 비전이 있어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며, 그 속에서 선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가 꼽는 한국의 가장 이색적인 점은 '한 손가락 문화' 라고 한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 음식을 각자의 손가락으로 다 같이 먹는 것이 어색해보였는데, 지금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해 그조차도 그러한 습관을 즐긴다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또한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도 함께 어울리는 친절할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국적은 다르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보는 것은 어떨까. 맛있는 인도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부산 곳곳에 있는 식당들을 해맑게 소개해주는 버마. 오늘은 그에게 인도식당 한 곳을 추천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한 걸음 그와 더 친밀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을까.

Inside SUNBO 추천 여행지



중고신상 여행지 '가덕도'

오는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가덕도'가 새로운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덕도'를 찾던 번거로움을 감소했던 것과 달리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창 동남아여행으로 주춤했던 국내여행들이, 제주도 등 여러 관광지의 부흥으로 인해 다시 여행객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가덕도 열풍에 큰 몫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의 불편함과 위치상 등으로 소외받았던 '가덕도'는 이미 그곳을 한번 찾아본 사람들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된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 등의 여느 피서지와는 달리 직접 조개와 소라를 직접 잡을 수 있고, 발목까지 흰히 내다보이는 맑은 물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이전에는 다소 미흡했던 숙박시설도 보충되고 있

고, 푸짐한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곳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여행객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 연대봉은 '가덕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인접해있는 부산의 곳곳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많은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가덕도'를 가는 길을 포함한 대항 주변에서는 낚시를 즐기는 이들 또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단순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휴양지로서의 섬이 아닌, 등산과 낚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덕도'. 사람들이 봄비는 해운대, 광안리를 떠나 한번쯤은 자연의 향기를 그윽하게 맡을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Life 최홍렬 상무의 이달의 책

행복한 출근길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주어진 조건에서 행복을 찾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직장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행복한 출근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불균형.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가슴 후련해지는 진리를 전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일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법륜스님은 우리를 조금씩 만드는 능력 밖의 자기 계발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법을 알려준다.

직장에서의 삶과 자신의 행복한 삶을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



법륜스님은 직장이 돈 버는 수단에 불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행복과 자유를 따로 구하려한다면 행복과 자유는 점점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라고 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님은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직장을 구하라고 충고한다.

여름사진 공모전

- 여러분의 즐거운 추억이 담긴 여름 사진을 공모 합니다. 선보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하며, 주제는 여름 사진이면 어떤 사진이든 가능합니다.
 - 참여 기간 : 2010년 8월 21~30일 (선정작은 사보를 통하여 발표됩니다)
 - 참여 방법 : 아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가능
 1. \\192.168.0.58\p_그림 사진\0_공모전\2010년 에 개인 이름 폴더를 만드신 후 사진 업로드
 2. sjbin@sunboind.co.kr로 이메일 송부
 3. 출력된 사진의 경우 경영지원부 안정빈GJ (내선 533)에게 제출 가능
 - 시상 내역
 - 대상 1명 : 20만원 상당의 상품
 - 은상 2명 : 10만원 상당의 상품
 - 동상 5명 : 5만원 상당의 상품
- ♣ 많이 참여해주세요.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 1공장** 권남현(8/9), 이영근(8/13), 권성현(8/21)
장세철(8/25)음
- 2공장** 김상훈(8/26), 임영삼(7/12)음
- 금천산업** 이희종(7/15)음
- 기획** 이기환(7/22)음
- 강재현반** 신용화(8/1), 김규성(8/5)
- 재원 ENG** 강석도(8/3)
- 설계3팀** 윤은석(7/3)음
- 순해공업** 김희규(7/10)음
- 신덕 ENG** 정지훈(8/13), 김계현(8/20), 남명일(8/3)
이선선(8/20)
- 우성 ENG** 김태우(8/5), 윤영철(7/15)음
- 영업팀** 유무성(7/11)음
- 자재조달** 김동관(7/11)음

본사 입사기념일

- 1공장** 김정민(8/7), 이은식(8/16), 김규성(8/6)
김진환(8/25), 정역희(8/27), 이진호(8/5)
- 2공장** 장차철(8/1)
- 경영지원** 이동하(8/6)
- 고객지원** 노재태(8/2), 류승진(8/20)
- 설계1팀** 고상현(8/6)
- 영업팀** 이황우(8/6)
- 자재조달** 최동배(8/5), 서상식(8/6)
- 품질경영** 최경호(8/13)

구평공장 생일

- 입원** 강보영(8/25)
- QA** 김건우(8/11)
- 구매** 이동준(8/17)
- 보성산업** 이창복(8/3), 허보선(8/20), 손대석(8/23)
권오용(8/16)
- 서경플랜트** 장동일(8/27), 이흥직(8/31), 박창수(8/2)
- 생산관리** 김광욱(8/19), 조영화(8/6)
- 평창산업** 공대성(8/25), 정정배(8/6)
- 하림테크** 조상연(8/17)

구평공장 입사기념일

품질보증 김영호

영도공장 생일

- 입원** 김진수(8/7)
- 의장관리** 표종원(8/1), 김택현(8/3)
- 자재운영** 김상철(8/15)

영도공장 입사기념일

의장관리 표종원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수많은 조연' 중 '하나'라는 것은



추용한 직장

Q 이번 호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전에도 한 번인가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쑥스럽고, 부끄러워요. 저 말고도 주변에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선정되었다니 괜히 부담이 크네요. 아직도 칭찬릴레이에 선정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칭찬받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나도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했을 때는 한 번쯤 조명 받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Q 평소 어떤 업무를 맡았으며, 평소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면?

제가 선보에 근무한지 이제 딱 4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동안 탱크탑 유니트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왔죠. 일하면서 특별한 신념은 없어요. 단지 회사는 개개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제 역할을 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퍼리로는 제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몸으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도와주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신념이라면 신념일까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Q 다음 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주인공으로 선정된 만큼 기준을 저 이상으로 생각하다보니 너무 많은 분들이 떠오르네요. 그 중에서도 설계부 윤치호 계장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따르는데, 항상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순리대로 일이 진행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윤 계장님을 떠올리면 웃는 모습이 생각나요. 그만큼 일을 할 때 항상 웃고 일하기 때문에, 그 분을 보면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또한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같으면서 참 큰 부분이예요. 일하는 동료에게 웃음을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 부분에서 닳고 싶은 점이 많은 이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안정빈 과장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